

# '우리쌀 100%'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확인

### 농진청,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복부 팽만감 2.3배 감소·가스 생성 줄이는 미생물 1.5배 증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경험한다는 과민성장증후군(IBS)은 복통과 복부 팽만감 등을 일으켜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만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 최근 장 건강이 만성질환과 대사성질환, 비만 뇌 건강 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소재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in vitro) 및 동물실험을 통해 쌀 유산발효물의 장내 유해 미생물 감소와 소장 내 면역 활성 개선 효과를 일부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동물 및 임상 시험을 통해 쌀 발효유산물의 장 질환 개선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농진청(청장 최재호)은 연구진은 대장 염증을 유발한 실험 쥐에 쌀 유산발효물을 6일간 먹였을 때, 질병활동도(DAI)가 21% 개선되고 혈변이 73% 감소했으며 염증성인자(IL-6)도 40% 감소해 대장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에게 쌀 유산발효음료를 1일 150ml씩 4주간 섭취토록 해 대조군보다 복부 팽만감 정도가 2.3배 감소하고 내장 지방 축적과 장내 가스 생성을 줄이는 유익한 미생물(Bifidobacteria)이 1.5배 증가해 과민성장증후군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정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유(乳) 발효식품은 과민성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쌀 유산발효물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복부 불편감을 개

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농진청은 쌀 발효유산물과 관련해 4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다수의 논문을 전문 저널에 게재했으며 산업체와 45건의 기술이전을 체결했다. 현재 쌀 유산발효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다. 농산업체 간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쌀의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이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로 식용·비식용 분야의 산업화 확장에 힘을 기울인다.

국립식량과학원 과도연 원장은 "쌀은 일반식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 소재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작물이다. 앞으로 쌀이 식사에서 벗어나 한층 다양하고 가능성을 갖춘 건강 산업 소재로 활용돼 식량자급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화관에서 진행된 '2024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북도회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대덕종합건설 김양희 대표, 원탑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토림종합건설 한상우 대표, 대영토건 정준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 2024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건협 전북 소속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 국무총리표창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화관에서 진행된 '2024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북도회 계성건설(주) 박종완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유)대덕종합건설 김양희 대표, (유)원탑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유)토림종합건설 한상우 대표, (주)대영토건 정준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계성건설(주) 박종완 대표는 6년 연속 국내 시공액 1위 업체로서 사회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특히 우수한 품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 향상과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및 성실한 국책사업 수행을 통한 꾸준한 봉사활동 참여로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중소기업에 상생과 동반성장의 표준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주)대영토건 정준수 대표는 실

무경험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으로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회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 능력을 발휘하여 건설안전과 품질향상, 지역실활성화와 동반성장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유)대덕종합건설 김양희 대표, (유)원탑종합건설 김양희 대표, (유)토림종합건설 한상우 대표, (주)대영토건 정준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주)대영토건 정준수 대표는 실

## 새만금개발공사, 속도감 있는 일괄 매립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 및 공사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 및 공사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나경균 사장은 지난 100일 동안, 새만금과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안을 청진 결과 새만금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관 뉴딜사업으로 '새만금 일괄 매립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속도감 있는 매립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매립면허권 지역의 개발 완료 시점을 최대한 단축해 매립 용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체 매립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에서는 매립사업 TF팀을 만들어 오래간 분석한 결과 전체 매립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총 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고, 공사 보유 현금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립사업은 7조원 규모의 공사비 집행으로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에 기여 하고, 새만금 지역의 신속한 용지 공급으로 민간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적기에 수요자에게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사를 통한 매립비용 절감 및 대단위 매립을 통한 용지비 매립비용 단절 등 매립사업의 기대되는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관 뉴딜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비 집행으로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에 기여 하고, 새만금 지역의 신속한 용지 공급으로 민간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적기에 수요자에게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사를 통한 매립비용 절감 및 대단위 매립을 통한 용지비 매립비용 단절 등 매립사업의 기대되는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관 뉴딜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새만금청-MICE협회, 새만금 관광·MICE 허브에 '맞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자, 식품, 관광MICE)를 추진 중으로 관광·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MICE협회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현대 한국 MICE 협회장이 참석하여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관광·MICE 허브를 조성하기 위

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천혜의 입지 및 자연환경, △지역 특화산업(아차전지, 수소 등) 생태계 구축, △매년 7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등 관광·MICE 산업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관광·MICE 산업에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관광·MICE 허브의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 내용을

정하고 향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관광·MICE 허브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관광·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MICE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만금 컨벤션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위치, 규모, 주제 등), △허브 조성에 필요한 예산, 인프라 확보 방안, △관광개발 특화 전략 등을 검토하고, /오만호 기자



한국MICE협회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료제공, 전문가 자문 및 협력, △국내·외 회의·기구 유치 전략, △새만금 컨벤션센터 특화 방안(전시주제, 경관 등) 등을 지원한다. /오만호 기자

## 바이오융합진흥원, 발달장애인과 쿠킹클래스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유부초밥 쿠킹클래스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전주시아 전주시장에인부모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도모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체험행사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케어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진흥원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과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강



조했다. 쿠킹클래스 체험행사는 발달장애인들이 케어관에서 직접 가꾼 채소를 활용하여 유부초밥을 만들고 손수 포장하는 등 유부초밥 만들기 전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김욱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